

글로벌 금융회사 포커스

## 미국 4대 금융그룹 2024년 실적분석과 시사점

2025. 3. 5.

- **미국 4대 금융그룹(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Citi, Wells Fargo)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3.0% 증가**
  - NIM 하락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1.2% 감소하였으나, 비이자이익이 기준금리 인하 및 금융 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개선되며 18.6% 증대
  - 판관비는 인건비 증가와 IT 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0.8% 확대되고, 대손비용도 상업용 부동산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9.2% 증가
-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이자이익 성장을 달성한 JPMC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비이자 이익 성장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한 Citi가 양호한 실적을 시현**
  - **(이자이익)**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자금유출로 예금금리가 상승해 NIM이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JPMC는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다각화 등으로 이자이익이 3.7% 증가
  - **(비이자이익)** IB 업황 개선과 트레이딩 확대 등으로 4대 그룹 모두 비이자이익이 증가했으며, Citi는 다년간 IB역량을 강화, 수수료이익(16.5%)과 유가증권이익(36.5%) 모두 가장 큰 폭 증가
  - **(비용)** Citi는 2023.9월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판관비가 4.3% 감소, 효율성비율이 4.6%p 개선되었고, WF는 CRE관련 부실자산과 관련 사업을 정리한 결과 대손비용을 19.8% 축소
  - **(주주환원)** 호실적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미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 4대 그룹은 배당금과 자사주매입을 각 9.1%, 95.4% 확대
- **2025년 미국 4대 금융그룹은 판관비(IT, 기술부문 투자), 대손비용 확대와 비이자이익 성장 제약(수수료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은 개선되어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할 전망**
  -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기준금리도 소폭 인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이익도 증가세로 반전
- **국내 금융그룹은 미국 주요그룹의 사례를 참고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AI, 기술 부문 투자를 지속하고 업무에 적용하며 조직 운영 방식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집중
  - 국내외 지정학적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 및 대비하면서 장기 성장부문에 적극 투자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해 주주가치를 제고

작성자: 경영전략연구실 오태준 수석연구원 (02-2173-0560)

## I. 2024년 실적 개요

### ■ 미국 4대 금융그룹\*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비이자이익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0% 늘어난 1,180억 달러를 시현(ROA는 0.97%로 6bp 상승)

\* JP Morgan Chase(이하 JPMC), Bank of America(BoA), Citi group(Citi), Wells Fargo(WF)

- 4대 금융그룹의 합산 총영업이익(4,432억 달러) 중 이자이익(2,505억 달러)은 NIM 하락(-0.13%p)의 영향으로 1.2% 감소했으나, 비이자이익(1,927억 달러)은 수수료 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모두 개선되어 18.6% 증가
- 판관비(2,672억 달러)는 인건비 증가와 IT·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0.8%) 증가
- 대손비용(309억 달러)은 상업용부동산시장(CRE)불안 등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하강 가능성을 반영해 9.2% 증가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 전체 실적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총영업이익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판관비	대손비용	당기순이익	ROA
2023년	416.0	253.5	164.3	264.9	28.3	104.4	0.89%
2024년	443.2	250.5	192.7	267.2	30.9	118.0	0.97%
증감률	6.5%	-1.2%	18.6%	0.8%	9.2%	13.0%	0.06%p

주: 4대 금융그룹 합산 기준(ROA는 4대 금융그룹 단순평균)

자료: 각사 IR,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그룹별로는 이익 규모 면에서 타 그룹과 격차를 확대해가고 있는 1위 JPMC와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한 Citi의 실적이 두드러짐

- (JPMC) 총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778억 달러, 585억 달러로 4대 금융그룹 전체 총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40.1%, 49.6%를 차지
  - 4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이자이익이 증가(3.7%) 했으며, 비이자이익도 큰 폭 확대(23.3%)되면서 가장 높은 총영업이익 증가율(12.2%)을 시현하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17.9% 확대
- (BoA) 비이자이익 확대 폭(9.5%)이 경쟁 그룹대비 상대적으로 낮아(4대 금융그룹 평균 18.6%) 총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각각 3.3%, 2.3%에 그침

- (Citi) 2023년부터 시행한 구조조정의 효과로 판관비가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감소(-4.3%)하고 효율성비율이 크게 개선(-4.6%p)되면서 당기순이익이 38.0% 확대
- (WF) 예금금리 상승 등 예대마진 축소로 이자수익이 가장 큰 폭(-9.0%) 감소한 영향으로 총영업이익이 소폭 축소(-0.4%)되고 당기순이익 증가가 3.1%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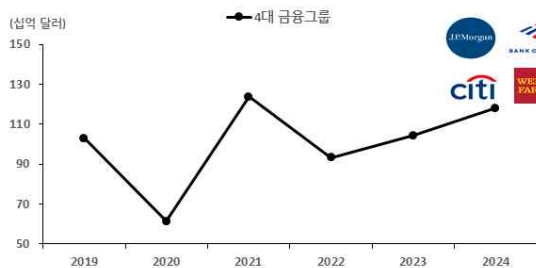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별 실적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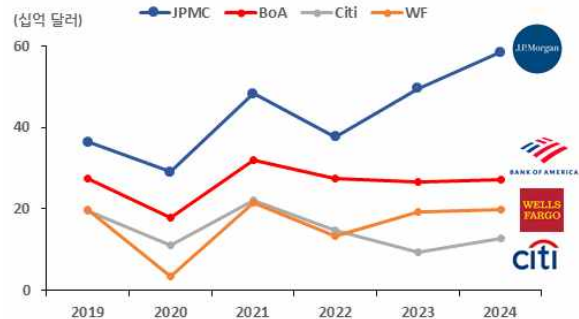
구분	총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A			
	JPMC	BoA	Citi	WF	JPMC	BoA	Citi	WF	JPMC	BoA	Citi	WF
2023년	158.4	98.8	76.2	82.6	49.6	26.5	9.2	19.1	1.31%	0.85%	0.38%	1.00%
2024년	177.8	102.0	81.1	82.3	58.5	27.1	12.7	19.7	1.48%	0.84%	0.53%	1.02%
증감률	12.2%	3.3%	6.4%	-0.4%	17.9%	2.3%	38.0%	3.1%	0.17%p	-0.01%p	0.15%p	0.02%p

자료: 각사 IR,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4대 금융그룹 순이익 총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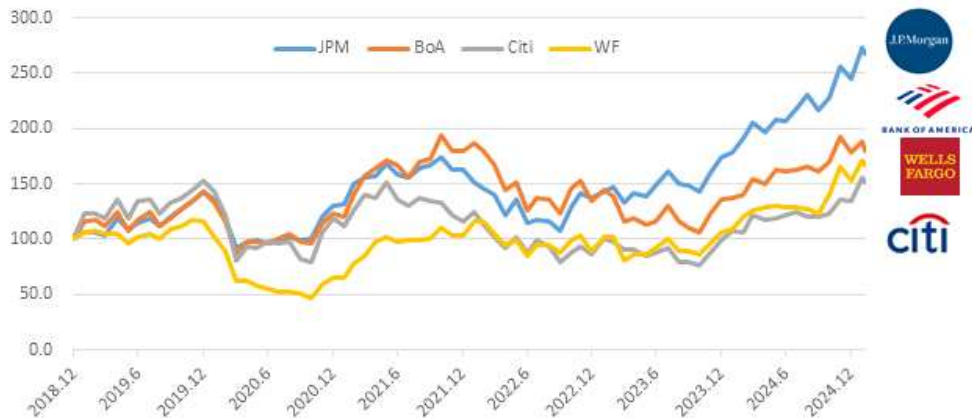


## 금융그룹별 순이익 추이



자료: 각사 IR,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4대 금융그룹 주가 추이



주: 1) 2018.12.31.일 종가=100 기준, 2) 2025년 주가는 2.25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II. 부문별 특징

### 1. 이자이익

#### ■ 대출 규모는 소폭 확대되었으나, 예대마진이 축소되며 2024년 4대 금융그룹의 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1.2% 감소

- 미국 경제의 호조(2024년 2.8% 성장)로 고용과 소비, 기업 활동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대출자산이 1.2% 증가했고, 예금 규모도 소폭 확대(0.5%)\*  
 \* 2023년에는 고금리로 시중 자금이 MMF 등으로 집중되며 4대 그룹 예금 감소(-0.4%)
- 미국의 실업률이 2024년 4.2% 이하로 유지\*되면서 소비가 지속 개선\*\*되어 대출 수요는 유지되었으나, 은행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기준 강화<sup>1)</sup> 등으로 대출 증가 폭은 억제  
 \* 미국 경제의 추정 자연 실업률(4.4%, Fannie Mae<sup>2)</sup>)을 지속 하회하는 경기 호황  
 \* 2024년 분기별 미국 소비 증가율(YOY, %): 1.9% → 2.8% → 3.7% → 4.2%<sup>3)</sup>
- 2024년 미 연준 기준금리가 3차례, 1%p 인하\*되며 대출금리는 제한된 반면 MMF 등 고수익 상품으로의 예금유출 압박 등으로 은행의 조달금리는 상승<sup>4)</sup> 하며 NIM이 0.13%p 하락, 이자이익 축소(-1.2%)의 주 요인으로 작용  
 \* 미 기준금리(% , 상단): 23.12월(5.50) → 24.9월(5.00) → 11월(4.75) → 12월(4.50)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별 이자이익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총계		JPMC		BoA		Citi		WF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이자이익	250.5	-1.2%	92.6	3.7%	56.1	-1.4%	54.1	-1.5%	47.7	-9.0%
NIM	2.48%	-0.13%p	2.70%	-0.05%p	1.99%	-0.11%p	2.46%	-0.04%p	2.80%	-0.33%p
총대출	4,117	1.2%	1,348	1.8%	1,105	4.2%	745	0.3%	919	-2.4%
총예금	7,027	0.5%	2,406	0.2%	1,965	2.1%	1,284	-1.9%	1,372	1.0%
예대율	58.6%	-0.5%p	56.0%	0.9%p	56.2%	1.1%p	58.0%	1.0%	67.0%	-2.3%

주: NIM, 예대율 총계는 4대 금융그룹 단순평균

자료: 각사 IR,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 S&P Global Ratings, 'U.S. GSIBs Q1 2024 Update: Strong Performance Underscores Resiliency', (2024.05.31.)

2) Fannie Mae, 'Economic Developments - October 2024', (2024.10.15.)

3) Fitch Ratings, 'U.S. Consumption Resilient, But Policy Uncertainties Pose Risks', (2025.02.10.)

4) Trepp, 'Bank Earnings Review - Q3 2024: Earnings Beat Expectations Despite Profit Decreases as Provisions for Credit Losses Increase', (2024.10.21.)

■ 대출을 확대하며 NIM 감소를 억제한 JPMC의 이자 이익 실적이 양호했던 반면, 대출이 감소하고 예대마진 축소폭이 가장 컸던 WF의 이자 이익은 큰 폭 감소

\* 24년 이자 이익 증감(전년비 %): JPMC(3.7), BoA(-1.4%), Citi(-1.5%), WF(-9.0%)

- (JPMC) 소비자 금융 부문 영업 호조로 대출자산이 증가(1.8%)하였고, 재무 효율화와 사업 다각화 등으로 NIM 축소를 0.05%p로 억제<sup>5)</sup>, 4대 금융그룹 중 가장 양호한 이자 이익 실적을 시현

- 소비자 금융과 기업금융, 카드와 WM 전 부문에서 적극적인 영업으로 고객 베이스를 확장했으며, 2024년 한해 약 2백만 개의 요구불예금계좌(checking account)가 신설

- 전략적인 자산 재투자\*와 리볼빙 규모 증가 등 카드 사업 확대\*\*등 재무 관리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NIM을 개선

\* JPMC는 전년 대비 현금성자산(-19.6%)과 타행예치금(-16.3%)의 규모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유가증권투자(19.0%)를 크게 늘리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

\*\* 카드대출 규모(전년비 %): JPMC 2,330억 달러(10.3), Citi 1,173억 달러(6.0)<sup>6)</sup>, BoA 1,0352억 달러(1.3), WF 565억 달러(8.3)

- (WF)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에 더해 금융규제당국의 조사·규제 등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NIM이 큰 폭(-0.33%p) 하락, 이자 이익이 축소(-9.0%)

- SEC는 2023년부터 WF가 미투자 고객 자금을 저금리 계좌로 옮기는 행위 (cash-sweep account)를 조사해 왔으며, 이에 대응해 24.2분기 WF는 WM 고객 예금 이자율을 주요 MMF 이자율(3% 이상<sup>7)</sup>)에 가깝게 인상<sup>8)</sup>

\* 해당 결정으로 WF의 2024년 연간 이자비용이 약 3.5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SEC는 2025.1월 WF에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sup>9)</sup>

\* SEC의 해당 조사는 WF와 Merrill Lynch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두 은행 외에도 Morgan Stanley, Charles Schwab, UBS 등 타 대형은행도 cash-sweep account와 관련해 SEC조사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음<sup>10)</sup>

5) JPMorganChase, '4Q24 Earnings Presentation', (2025.01.)

6) Citi는 미국 개인뱅킹 사업부(USPB)의 신용카드 대출만을 포함

7) 2025.2월 현재 Vanguard, JPMC, Schwab 등 대규모 MMF의 이자율이 2.6~4.7%에 달함

8) AdvisorHub, 'Wells Fargo to Lose \$350 Million in Revenue as It Raises Rates on Client Cash', (2024.07.12.)

9) Compliance Week, 'Wells Fargo fined \$35M, Merrill Lynch \$25M over improper cash sweeps', (2025.01.21.)

10) Bloomberg Law, 'Wall Street Giants in Crosshairs Over Broker Cash Sweep Accounts', (2024.09.05.)

- WM뿐 아니라 소비자, 기업뱅킹 부문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예금유치 경쟁으로 이자율 등 조달비용이 증가하며 이자 이익이 축소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별 자산유형별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

구분	JPMC	BoA	Citi	WF
현금성자산	-19.6%	-6.8%	-16.7%	12.3%
은행간자산	-10.4%	-8.2%	-8.2%	-4.6%
Repo	6.8%	-2.1%	-19.5%	30.9%
타행예치금	-16.3%	-13.7%	8.6%	-18.6%
총대출채권	1.8%	4.3%	0.3%	-2.4%
유가증권투자	19.0%	7.2%	5.3%	5.8%
단기매매증권	18.7%	13.4%	25.1%	24.6%
매도가능증권	101.7%	29.5%	-11.7%	24.9%
만기보유증권	-25.8%	-6.0%	-4.7%	-10.6%
총자산	3.3%	2.6%	-2.3%	-0.1%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 비이자이익

###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의 비이자이익은 수수료 이익(14.7%)과 유가증권 이익(13.9%)이 모두 개선되며 전년대비 18.6% 증가

-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시장 활성화 등이 IB업황 개선과 트레이딩 수요 확대, WM 수요 증가로 연결되며 수수료 이익이 확대
  - 저금리의 영향으로 M&A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확대되며 IB 수요가 증가, 4대 은행의 IB 수수료 수익이 전년대비 27% 확대
    - \* 2024년 글로벌 M&A 총 규모는 3.17조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DCM과 ECM은 10.7조, 0.6조 달러(각각 21% 증가), Syndicated Loan은 5.3조 달러로 40% 증가<sup>11)</sup>
  - 금리 인하와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고객 자산 규모가 확대되어 AM, WM 사업이 활성화되고 수수료 이익이 증가
    - \* 2024년의 1년간 S&P500 지수는 29% 상승했고,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연초부터 11월까지 4.2% 상승<sup>12)</sup>

11) LSGE Data & Analytics, 'Global Investment Banking Review: Full Year 2024', (2025.01.)

12) Fred, 'S&P CoreLogic Case-Shiller U.S. National Home Price Index', (2025.01.28.)

- 유가증권 관련 수익은 글로벌 금융시장 회복과 금리 변동성 등으로 인한 트레이딩 수익이 개선되면서 13.9% 성장
- 연준의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계속 변화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수익성을 좇는 고객 자금이동이 빈번해 졌고, 이에 따라 FICC(Fixed income, Currency and Commodity)등 트레이딩 수익이 큰 폭 확대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별 비이자이익 실적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총계		JPMC		BoA		Citi		WF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비이자이익	192.7	18.6%	85.2	23.3%	45.9	9.5%	27.0	26.8%	34.6	14.6%
수수료	126.7	14.7%	48.7	16.2%	36.3	13.4%	14.8	16.5%	26.9	12.6%
유가증권	54.1	13.9%	24.0	11.1%	13.1	0.8%	12.0	36.5%	5.4	22.7%
기타	9.1	264.0%	12.5	123.2%	-3.4	9.7%	0.0	N/A	0.0	N/A

자료: 각사 IR,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별 IB부문 실적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총계		JPMC		BoA		Citi		WF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IB수수료	22.9	27%	9.2	26%	6.4	25%	4.6	29%	2.7	29%
M&A	5.9	12%	2.9	19%	1.4	0%	1.2	13%	0.4	11%
ECM	3.4	45%	1.5	48%	0.9	27%	0.8	59%	0.2	65%
DCM	6.6	38%	2.2	43%	1.8	34%	1.6	37%	1.0	38%
Syndicated Loan	6.9	24%	2.5	12%	2.2	38%	1.1	22%	1.1	28%

주: LSEG Workspace에서 집계한 것으로 공시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LSEG Workspac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지속적으로 IB 부문 경쟁력을 강화한 Citi가 수수료 이익(16.5%)과 유가증권 이익(36.5%) 모두 4대 금융그룹 중 가장 큰 폭 개선

\* 23년 비이자이익 증감(전년비 %): Citi(26.8%), JPMC(23.3%), WF(14.6%), BoA(9.5%)

- (Citi) 다년간 경쟁 은행에서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고 트레이딩사업 역량과 글로벌 IB 오피스를 확대해온 결과가 2024년 비이자이익 실적 개선으로 연결
- 2024.2월 JPMC의 Viswas Raghavan을 IB와 기업금융을 모두 관할하는 Banking 총괄로 영입한데 이어, 2024년 내내 IB 부문의 head들을 경쟁은행들로부터 공격적으로 스카우트



- \* 2024.9월 JPMC의 Sidharth Punshi를 영국·유럽·EMEA 대체자산부문장으로<sup>13)</sup>, 10월 WF의 Cully Davis를 미국 성장Equity 부문장으로<sup>14)</sup>, 11월 JPMC출신 Jeff Stuette를 미국 의료M&A부문 부사장으로 영입<sup>15)</sup>
- 구조조정으로 저수익 부문 인력은 감축하고 있으나, 핵심 전략부문 글로벌 IB 오피스의 인력은 대거 충원하며 사모펀드 등과의 협력을 확대
- \* 2022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PB 사업 규모를 확장한데<sup>16)</sup> 이어 2023년 프랑스 파리의 트레이딩 데스크를 크게 확대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 (130명 → 250명)하였으며<sup>17)</sup>, 2024년 인도의 IB 인력 규모를 큰 폭 확대<sup>18)</sup>
- \* 2024.9월 사모펀드와 VC투자 전문 금융기관 Apollo와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추후 수년간 기업고객에 대한 250억 달러 규모의 사모 대출을 주선할 계획<sup>19)</sup>
- (BoA) 수수료 이익은 13.4% 증가했으나, 유가증권 관련이익 증가가 0.8%에 그치며 4대 은행 중 가장 저조한 비이자이익 증가율(9.5%)을 기록
- BoA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수적인 경영방침을 도입, 고성장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이 있음<sup>20)</sup>
- ※ 2024년 초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과 지정학적 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았으나, 결과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시행했던 Citi 등 경쟁은행의 비이자이익 실적이 양호했던 반면 BoA는 실적이 저조

### 3. 비용

####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의 판매관리비는 0.8% 늘어났으나, 영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효율성비율(C/I Ratio)은 2.4%p 개선

- \* 24년 효율성비율 증감(전년비 %p): Citi(-4.6), JPMC(-2.9), WF(-1.4), BoA(-0.6)

13) Financial News, 'Citigroup hires JPMorgan's Punshi for financial sponsors', (2024.09.10.)

14) Reuters, 'Citi hires Davis from Wells Fargo as head of growth equity for North America', (2024.10.16.)

15) Reuters, 'Citi hires top dealmaker Jeff Stute from Perella to bolster healthcare M&A ranks', (2024.11.05.)

16) Citigroup, 'Citi Further Expands Private Banking Business in Europe with New Offices Opening in Germany and France', (2022.05.03.)

17) Finance Magnates, 'Citigroup Plans to Double Staff and Open New Trading Floor in Paris', (2023.06.03.)

18) Reuters, 'Citi to boost investment banking headcount in India betting on deals surge', (2024.07.17.)

19) Citigroup, 'Citi and Apollo Announce \$25 Billion Private Credit, Direct Lending Program', (2024.09.26.)

20) Global Financial Market Review, 'Bank Of America's Conservative Playbook: A Missed Opportunity Or Long-Term Vision?', (2025.01.17.)



- 판관비 확대는 주로 인건비 증가(4.0%)와 디지털 인프라 확대 및 사이버보안 개선에 따른 통신비(6.0%)가 늘어난 것에 기인
  - IB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각 은행들은 인재 영입을 지속하는 동시에 보수 인상을 통한 핵심인력 유지(retention)에 집중
    - \* 2024.9월, BoA는 미국사업장의 기본급 최저임금을 시간당 23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2017년 BoA 최저임금 15달러 대비 60% 인상)했고, 전 직원의 97%가 기본급 외에도 별도 자사주를 지급 받음(2017년 이후 총 48억 달러가 자사주 형태로 직원들에게 지급<sup>21)</sup>)
    - \* 4대 은행 외에도 GS는 2024.11월 95명의 신입 파트너를 임명(2020년 대비 58% 증가)하고, 2023년에는 CEO와 COO에게 연봉으로 전년대비 각 24%, 28% 인상된 3,100만 달러 3,000만 달러를 지급<sup>22)</sup>하는 등, IB업계에서의 보수 인상 경쟁이 심화
  - 미 4대 은행도 현 글로벌 금융업계 트렌드인 AI 혁신과 보안 기준 상향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과 사이버 보안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통신비 지출이 증가(6.0%)
    - \* 2024년 글로벌 금융그룹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2년간 사이버 보안과 AI, 블록체인에 대한 회사별 평균 지출을 각각 28%, 21%, 20%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sup>23)</sup>
    - \* 2024.10월, Citi는 금융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Google Cloud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sup>24)</sup>했고, WF의 CFO는 2025.2월 WF 업무의 전 분야에서 AI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sup>25)</sup>
- (Citi) 2023년부터 시행해온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힘입어 판관비가 가장 큰 폭 감소(-4.3%)했으며, 비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효율성 비율도 4.6%p 개선
  - 2023.9월 Citi는 보고체계를 기존 13단계에서 8단계로 축소하는 조직 슬림화를 수행했고<sup>26)</sup>, 2026년까지 직원 2만명(전직원의 10%)을 정리해고할 계획을 발표했으며<sup>27)</sup>, 2024년말까지 실제 1만1,000명을 감축
    - \* 관료조직 슬림화와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도 2024년말 고성과자 8,500명의 승진을 단행하는 등 핵심 인재 retention에는 자원을 아끼지 않음<sup>28)</sup>

21) South Sound Business, 'Bank of America Increases Minimum Hourly Wage', (2024.09.16.)

22) Financial News, 'Goldman Sachs promotes 95 partners in biggest class of Solomon era — here are the names', (2024.11.08.)

New York Post, 'Goldman Sachs to promote biggest partner class since CEO David Solomon took helm: 'Wall Street's most exclusive club'', (2024.11.05.)

23) Broadridge, 'The Next Horizon in Digital Transformation', (2024.11.)

24) Fortune, 'Citi moves vital infrastructure to Google Cloud as part of broader AI push', (2024.10.29.)

25) Barron's, 'AI Will Affect Nearly 'Every Part' of Wells Fargo, CFO Says', (2025.02.11.)

26) Citigroup, 'Citi Aligns Organizational Structure with Its Strategy and Simplifies Operating Model', (2024.09.13.)

27) WSJ, 'Citigroup Plans to Cut 20,000 Jobs', (2024.01.12.)

- 핵심 서비스에 집중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4.4분기에 WM 부문에서 신탁사업 부문을 매각하고<sup>29)</sup> 멕시코의 소매은행 Banamax를 분사하는 등<sup>30)</sup> 구조조정을 진행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별 판관비, 효율성비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총계		JPMC		BoA		Citi		WF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판관비	267.2	0.8%	91.8	5.3%	66.8	1.5%	54.0	-4.3%	54.6	-1.8%
인건비	155.8	4.0%	51.4	10.5%	40.2	5.0%	28.5	-2.3%	35.7	-0.3%
물건비	17.8	3.4%	5.0	8.7%	7.3	1.4%	2.4	-2.4%	3.1	5.2%
통신비	30.6	6.0%	9.8	6.5%	7.2	7.5%	9.0	-0.7%	4.6	17.4%
마케팅	9.0	3.2%	5.0	8.7%	2.0	5.3%	1.1	-20.7%	0.9	8.8%
기타	53.5	-11.1%	20.1	-9.9%	10.1	-13.7%	12.9	-8.5%	10.4	-14.1%
효율성비율	61.8%	-2.4%p	51.1%	-2.9%p	65.7%	-0.6%p	66.2%	-4.6%p	64.8	-1.4%p

주: 효율성비율 총계는 단순평균

자료: 각사 IR,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대손비용이 전년대비 9.2% 증가한 반면, 소비자 대출의 부실비율 감소 등으로 NPL 비율은 소폭 하락(-0.01%p)

- 2024년까지는 미국 경기가 지속 성장하였으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CRE)의 불안이 지속되는 등\*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대
  - \* 대형은행들은 지방은행에 비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대한 노출이 크지 않으나, CRE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경기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증가
-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4.7월 사상최고인 13.8%를 기록하는 등 시장불안이 지속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론의 부실비율이 2024.1월 4.66%에서 12월 6.57%로 지속 상승<sup>31)</sup>
- 2024.8월 BoA 펀드매니저 설문 결과, 1년내 미국 경제 침체(hard landing)와 둔화(soft landing)를 예측하는 비중이 각 13%, 76%로 2024.4월 예상(7%, 54%)에 비해 각각 5%p, 22%p 확대<sup>32)</sup>
  - \* 7월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순흡수율(net absorption, 신규임대와 신규공실 차이)이 전년대비 각 40%, 68% 감소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

28) Financial Times, 'Citigroup hands out 8,500 year-end promotions', (2025.02.07.)

29) Reuters, 'Citigroup says wealth unit to sell trust services business', (2024.10.10.)

30) Reuters, 'Citi completes split of Mexico business ahead of Banamex IPO', (2024.12.03.)

31) Commercial Property Executive, '2024 CMBS Delinquency Rates', (2025.01.30.)

32) Financial Times, 'US banks may (or may not) be bracing for a hard landing', (2024.08.14.)

- (WF) CRE 등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 축소에 집중한 결과 미국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대손비용이 큰 폭(-19.8%) 감소
  - 2024년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총액은 4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줄었으며, 특히 오피스론 등 위험 자산 정리에 집중해 부실채권이 4.5억 달러(5%) 축소<sup>33)</sup>
  - 2024.8월, WF는 4,750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모기지 서비스 사업\*을 Trimont에 매각하며 CRE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핵심 사업 부문에 집중<sup>34)</sup>
- \* 제3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모기지론의 상환과 관리, 모기지론이 미상환될 경우 부채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나 압류(foreclosure) 등을 관리하는 사업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별 대손관련 항목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총계		JPMC		BoA		Citi		WF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대손비용	30.9	9.2%	10.7	14.8%	5.8	31.8%	10.1	9.8%	4.3	-19.8%
대손충당금 잔액	70.3	2.8%	24.3	8.7%	13.2	-0.8%	18.6	2.6%	14.2	-2.7%
NPL비율	0.60%	-0.01%p	0.65%	0.13%p	0.55%	0.02%p	0.34%	-0.13%p	0.86%	-0.04%p

주: NPL비율 총계는 단순평균

자료: 각사 IR,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4. 주주환원

### ■ 호실적과 더불어 미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어 2024년 4대 금융그룹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금액을 전년대비 9.1%, 95.4% 확대

- 미국 은행들에 적용이 예정된 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당초 계획보다 완화되었고, 연준의 2024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양호해 은행들이 주주환원 비율을 확대
  - ‘Basel Endgame’이라 불리는 자본비율 강화규제의 초안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속한 GSIB\*에 대한 CET1 자본 적립 요구액이 약 19% 증가하는 것이었으나, 2024.9월 발표한 개정 계획에는 적립 요구액 증가분이 약 9%로 축소<sup>35)</sup>

\*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33) Wells Fargo, ‘Wells Fargo Reports Fourth Quarter 2024 Net Income of \$5.1 billion, or \$1.43 per Diluted Share’, (2025.01.15.)

34) Wells Fargo, ‘Wells Fargo Enters into Agreement with Trimont to Sell the Non-Agency Third-Party Servicing Segment of its Commercial Mortgage Servicing Business’, (2024.08.20.)

35) Reuters, ‘Fed’s Basel climbdown leaves foot on rules ladder’, (2024.09.11.)

- \* 2024년말 JPMC, BoA, Citi, WF의 CET1 자본 규모는 각각 2,750억, 2,000억, 1,550억, 1,350억 달러로 규제강화 계획 변동으로 인한 4대 은행의 추가 자본 버퍼 적립요구 부담이 각각 275억, 200억, 155억, 135억 달러 감소
- 2024.6월 연준이 발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31개 미국 대형은행의 CET1 비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필요한 9.9%를 초과하는 12.7%로, 총 6,850억 달러 손실을 부담하고도 정상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음
- JPMC와 BoA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직후인 6월, 배당금의 증액(JPMC 8.7%, BoA 8%)과 각각 300억, 2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발표<sup>36)37)</sup>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별 주주환원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총계		JPMC		BoA		Citi		WF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배당금(A)	30.1	9.1%	13.8	14.0%	8.9	6.2%	4.2	1.7%	5.1	7.1%
자사주매입(B)	55.5	95.4%	18.8	89.9%	13.4	197.8%	3.6	80.0%	19.7	64.2%
순이익(C)	118.0	13.0%	58.5	18.0%	27.1	2.3%	12.7	38.0%	19.7	3.1%
주주환원율	73.3%	18.9%p	55.7%	11.4%p	78.5%	33.6%p	61.0%	-3.1%p	126.1%	38.1%p

주: 1) 각 그룹 주주환원율은 (배당금+자사주 매입)/순이익(=(A+B)/C), 2) 주주환원율 총계는 단순평균  
 자료: 각사 IR,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III. 2025년 전망

### ■ 2025년 미국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은 판관비와 대손비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개선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1.8%)할 전망(Bloomberg 컨센서스)

- (이자이익)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낮아지면서 기준금리도 소폭 인하에 그치며 이자이익도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 2025년 미국 실질GDP성장률 전망: 미 의회예산처: 1.9%<sup>38)</sup>, IMF 2.7%<sup>39)</sup>
  - \* 미 연준(Fed of Dallas)은 2025.2월, 미국의 실업률이 큰 폭의 변동을 겪지 않으면 2025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깝게 머물 것이라고 전망<sup>40)</sup>

36) Bank of America, 'Bank of America Comments on Stress Test Results; Plans to Increase Quarterly Dividend 8% to \$0.26 Per Share', (2024.06.28.)

37) JP Morgan Chase, 'JPMorgan Chase Plans Dividend Increase and Has Authorized a New Common Share Repurchase Program', (2024.06.28.)

38)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2025.01.17.)

39)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bal Growth: divergent and uncertain', (2025.01.)

- \* 2025.02.27일 기준 금융시장은 2025년 연간 연준의 기준금리가 2차례, 0.5%p 인하될 확률이 32.9%로 가장 높다고 전망(CME Fedwatch)<sup>41)</sup>
- 예금 금리의 지속 상승이 이자이익 증가 폭을 제한할 가능성은 존재
- **(비이자이익)** WM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은행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지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비이자이익의 성장이 제한될 가능성
  - 대형은행들이 WM시장에 적극 진출해왔으나, 북미 WM시장의 10개 대형은행 시장 점유율이 48%까지 상승<sup>42)</sup>해 성장여력이 크지 않고, 2024.8월 시행된 설문에서 74%의 WM 고객들이 높은 수수료때문에 불만족한다고 응답<sup>43)</sup>
  - \* 패시브 투자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서비스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이 큼
  -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들이 초과인출(overdraft), 카드 할부, ATM 이용, 서비스 수수료 등 “Junk fee”를 과도하게 부과해 고객에게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전가한다고 지적하고 2024.12월 초과인출 수수료 제한 규제를 도입<sup>44)</sup>
- **(비용)** 은행들이 IT·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어 판관비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CRE 리스크나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 불확실성으로 대손 비용도 증가

## 미국 4대 금융그룹 2025년 실적 컨센서스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총계		JPMC		BoA		Citi		WF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총영업이익	454.7	1.8%	176.7	-2.2%	109.0	6.3%	84.0	3.5%	85.0	3.3%
이자이익	258.7	2.7%	94.3	1.3%	60.4	6.6%	55.2	2.0%	48.7	1.5%
비이자이익	196.0	0.5%	83.1	-5.0%	48.2	5.2%	28.8	6.5%	35.9	3.6%
판관비	271.5	7.9%	95.1	4.4%	68.7	2.8%	53.6	33.3%	54.1	1.1%
대손비용	32.7	5.8%	11.1	4.3%	6.3	7.7%	10.3	2.0%	5.0	15.9%
당기순이익	118.4	0.3%	53.9	-7.8%	29.4	8.5%	15.1	18.0%	20.0	1.5%
ROA	0.95%	0.0%p	1.29%	-0.14%p	0.87%	0.04%p	0.62%	0.11%p	1.03%	0.00%p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40)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Is inflation still slowing? Early 2025 data pivotal to outlook', (2025.02.11.)

41) CME Group, 'FedWatch', (2025.02.10.)

42) WSJ, 'Wealth Management Is a Risky Gold Rush for Banks', (2024.03.30.)

43) Deloitte, '2025 banking and capital markets outlook', (2024.10.13.)

44)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Closes Overdraft Loophole to Save Americans Billions in Fees', (2024.12.12.)

#### IV. 시사점

##### ■ 2024년 미국 4대 금융그룹은 사업 다각화와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기술 부문 투자를 통한 경영 효율화,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따라 실적이 차별화

- **(사업 다각화)** 2024년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조달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으며 이자이익이 위축되었으나, JPMC는 카드사업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을 늘렸고 Citi는 다년간 시행한 IB·WM 인력 충원의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을 큰 폭 확대
- **(경영 효율화)** Citi는 2023년 이후 대규모 감원과 보고체계 단순화 등 조직개편을 진행한 결과 효율성 비율이 크게 개선(-4.6%) 되었으며, 4대 금융그룹 모두 기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며 AI를 경영전반에 도입, 효율화를 추진
- **(리스크 관리)** WF는 CRE 관련 위험 자산을 정리하고 관련 사업을 매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대손비용을 큰 폭(-19.8%) 축소
- **(주주환원)** 4대 그룹 모두 AI 등 미래 성장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동시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였고 2024년 1년간 4대 금융그룹의 주가가 평균 37.7% 상승
  - 2024년 주가 상승폭(%): JPMC 40.9%, BoA 30.5%, Citi 36.8%, WF 42.7%

##### ■ 국내 금융그룹은 미국 주요그룹의 사례를 참고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AI, 기술 부문 투자를 지속하고 업무에 적용하며 조직 운영 방식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집중
- 증권·카드·보험·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비이자이익의 성장이 이자이익의 위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비
- 국내외 지정학적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 및 대비하면서 장기 성장부문에 적극 투자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해 주주가치를 제고
  -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2025.01.21일) 이후 무역, 경제, 외교정책 등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정책 변화를 공언·실천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